

#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tyles of Lov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강영자\* · 김윤희\*\* · 박현숙\*\*\* · 진형덕\*\*\* · 김희경\*\*\*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벤처산업학전공\*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Kang, Young Ja\* · Kim, Yun Hee\*\* · Park, Hyun Sook\*\*\* · Jin, Hyung Duck\*\*\* · Kim, Hee Kyoung\*\*\*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Taejon Univ\* ·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tyle of loving among 88 men and 128 women in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result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tyle of lov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show that men have expectation for the achievement and encouragement more than women as they are moved up the higher grade. Largely when they are moved up the higher grade, they respect individual opinion and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behaviors. Also they tend to have the cooperation in their home. So as they are moved up the higher grade, they have the independent spirit from their parents and are prepared to adaptability for social life.

Second, the result of the style of loving show that men tend to fall in love easily and also pursuit altruistic and romantic love. According to being moved up the higher grade, they have the actual attitude in the intercourse with the other sex.

Third, the result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show that persons who want to come true their desire more need the friendly love, altruistic love and love for amusement. Contrarily, when they don't communicate each other in their home, they tend to pursuit love for amusement. When they have the higher level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heir psychological environment, they tend to pursuit for logical love. When they have expectation of mutual role, mutual intimacy, love and respect, they pursuit friendly love. Also through they are adapt for style of social behaviors in each other, they acquire the love and respect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y pursuit friendly love through it.

**Key words** :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style of loving

---

Corresponding :Kang, Young Ja

Tel.(042) 280-2453 Fax.(042) 280-2459

Email : kang@dragon.taejon.ac.kr

## I. 서론

사춘기 후기인 대학생 시기는 발달특징 중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이다. 자아정체감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가치관, 목표 및 능력을 통합하여 자기의 것으로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기대 및 요구와 개인의 주관적 선택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주관적 선택은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중술, 1994). 자율성은 독립적인 심리상태로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의 자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에서 개인이 자라온 심리적 성장환경이다. 즉 가정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1차적이며 직접적인 환경으로 성격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유안진, 1989)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부모자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한계와 기대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자녀들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Lavoie, J. C., & Looft, W. R., 1973, Hauser, S.T., Powers, S.L., 1984)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를 형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자아정체가 혼란한 경우 유연성이 결여되고 고정화된 관계밖에 형성하지 못하거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중술, 1994).

즉 이러한 대인관계양상은 이성과의 애정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며 성격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성인이 된 이후의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성장환경 및 사랑유형의 양상을 살펴보고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체감 확립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성교제 및 미래의 결혼생활적응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심리적 성장환경

인간의 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게 되는데, 이중 심리적 성장환경은 인간이 태내에서 수정이 시작되어 출생 후 현재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관련한 모든 환경조건을 말하며(심용철, 1992), 심리적 환경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크게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족의 성격, 심리적 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고태용, 김해은, 1996). 즉 심리적 성장환경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정환경으로 이는 가족간의 심리적 과정이며 부모-자녀간의 양육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상을 의미한다(심용철, 1992, 재인용).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환경 및 그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과정환경은 가정화목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선애, 1997; 김윤희, 1989; 정유미, 김득성, 1998). 또한 김영국(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이 인간의 일탈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부모의 애정관계를 토대로 이뤄진 혈연 공동체로 인간의 심리적·신체적 발달 그리고 인간 관계 형성에 최초의 교육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천희영, 유혜옥(1992)은 부모가 제한적이지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정의 자녀는 높은 자아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부모의 지나친 통제 및 지배하는 가정에서의 자녀는 거부적인 가족환경을 경험하게 되어 낮은 자아감을 내면에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비효율적인 기능과 갈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개념을 촉진시키고(Ketsetzis et al., 1998),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권혜진, 윤종희, 1993).

일반적인 가정환경은 특히 성격형성, 즉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습관 등을 포함하며 가족구성원간 욕구충족이나 사회성의 발달로 독립적인 자아개념, 성격특성을 형성한다(조은숙, 1978).

### 2. 대학생의 사랑유형

우리의 전통적인 애정관은 동일한 논리관으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했으나 오늘날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여러 면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대학생의 애정관에 대한 사고 중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남녀학생의 차이는 있으나 인격, 애정, 재산 순서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 애정을 우선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애정대상을 찾는데 적극적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닌 친구 같은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 대상을 찾으며 결혼대상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서로의 성격차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강릉대 학생생활연구소, 1994). 사랑의 종류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논리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와 같은 사랑이 훨씬 더 많았으며, 남자들은 유희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이 훨씬 더 많았다. 이타적 사랑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이 남성파 동등한 사회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여성의 사랑 형태도 소유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더 유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술, 1994).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위도 부모의 개입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사를 통한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대개 우연히 만나 친구에서 애정관계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박순영, 1983).

연령에 따른 사랑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Knox(1970, 1982)의 경우로 고등학생 상급생과 결혼한지 20년이 넘는 부부 각각 100명을 비교한 결과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더 낭만적이었으며, 미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낭만적이었으며 신입생이 상급생보다 더 낭만적이었다(김정옥, 1992, 재인용).

성장에 따른 사랑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춘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이 여러 시도를 하게 되고 사랑에 있어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여러 역할실험을 하게 된다. 에릭슨은 최종적으로 확립된 자아정체를 형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역할 실험을 자유롭게 해보는 과정을 심리 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 moratorium)이라 하였다(Erikson, E. H., 1959). 청소년기에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

로소 긍정적인 자아정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자아정체를 형성한 사람은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된다. 특히, 긍정적 자아정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정서적 보답을 느끼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반해 자아정체 혼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유연성이 결여되고 고정화된 관계밖에 형성하지 못하거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아정체의 형성은 성인기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서 성인기의 상호 만족적인 대인관계형성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진다(김중술, 1994).

### 3.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

심리적 성장환경은 인간의 심리적·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성격, 가치관 등 여러 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성장환경 중 부모양육 유형은 자녀의 정신적·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러 문헌에서 관심 있게 보여지고 있는 양육유형으로 독재적, 민주적, 허용적인 부모유형((Enright, Lapsley, Drivas, & Fehr, 1980)으로 독재적인 유형은 자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민주적 양육유형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부모와 평등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를 복돋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는 자녀 문제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거나 결정하는 유형이다. 허용적인 양육유형은 자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은 부모 영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결정에 대해 약간의 책임감을 있지만 자녀로 하여금 그 결정에 따르도록 복돋아 주는 민주적 부모는 책임감 있는 독립성을 키워주는 반면에 독재적인 부모는 자율적 행동을 복돋아 주는 경향이 없고, 허용적인 부모는 책임감보다 자율성을 키워준다. 이러한 부모자녀양육 유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Erikson, 1968).

이렇게 심리적 성장환경 중 부모양육유형은 자녀의 정신적·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교육 장소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관계가 유아기때부터 잘 형성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에 수용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자아정체가 긍정적인 사람은 친밀한 애정관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노출해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따뜻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은 사람은 자아정체의 혼란을 가져와 자신의 역할을 통합하고 이해할 줄 모르며 상반된 가치관으로 판단여부가 혼란하다. 그러므로 자아에 위협을 느껴 상대방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타인과 장벽을 쌓아 자아감을 보호함으로 친밀한 관계에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김중술, 1994). 이런 자아감의 손상은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얻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생긴 불안감이 무의식에서 존재하며, 결국 가정환경에서 경험했던 애정과 부모관계를 바탕으로 성적 성숙, 인지적 이해, 긍정적 자아정체 형성, 도덕적 판단력 등이 합쳐져 긍정적인 애정관계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 Ⅲ. 연구문제 및 용어정의

#### 1. 연구문제

- 1)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 2) 대학생의 사랑유형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 3)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 1) 심리적 성장환경

심리적 성장환경은 가정의 인적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간의 인간관계 및 인간의 욕구충족 방식에 따라 형성된 심리적 분위기를 말한다.

##### 2) 사랑유형

사랑은 책임감, 친밀감, 열정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랑유형은 각 개인의 사랑에 대한 생각, 사랑할 때의 감정, 사랑에서 필요한 조건 등을 내용으로 나누어진 사랑의 종류를 말한다.

## Ⅳ.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전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16명이었으며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내용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6부(설문지 회수율 86%)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N(%)	전 체
성	남학생	88 (40.7%)	216(100.0)
	여학생	128 (59.3%)	
연 령	18세 ~ 19세	14( 6.5)	216(100.0)
	20세 ~ 21세	65(30.1)	
	22세 ~ 23세	68(31.5)	
	24세 ~ 25세	35(16.2)	
	26세 ~ 27세	24(11.1)	
	28세 이상	10( 4.6)	

### 2. 측정도구

##### 1) 심리적 성장환경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성장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용철(1993)이 개발한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수용-거부, 사랑-증오,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

〈표 2〉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값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전통고수	18, 42, 51, 64, 73	0.79
자유	6, 11, 14, 19, 22, 30, 43, 59, 61, 65	0.74
성취	2, 9, 15, 25, 26, 35, 40, 49, 50, 63	0.75
의사소통	3, 10, 21, 23, 24, 27, 29, 39, 50, 63	0.71
역할상호기대	17, 37, 44, 48, 62	0.74
상호친밀	45, 54, 57, 66, 69	0.71
변화지향	5, 52, 68, 71	0.72
집단응집력	7, 56, 58, 60, 67	0.71
물질지향	46, 53, 55	0.71
사랑	4, 12, 31, 32, 34, 36	0.72
존경	8, 16, 20, 28, 38, 70	0.71
수용	1, 13, 33, 41, 72	0.72

〈표 3〉 사랑유형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값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2, 5, 8, 21, 29, 32, 37, 50	0.743
이타적 사랑	12, 13, 19, 24, 30, 36, 40, 44, 48	0.752
논리적 사랑	4, 9, 16, 28, 31, 38, 42, 47, 49	0.745
유희적 사랑	3, 10, 11, 18, 22, 25, 39, 43, 45	0.753
낭만적 사랑	1, 7, 17, 20, 23, 33, 35, 41	0.748
소유적 사랑	6, 14, 15, 26, 27, 33, 34, 46	0.749

질지향 등 12개의 하위변인으로 전체 74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시하였다<표 2>.

2) 사랑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라스웰(Lasswel, M. & Lobsenz, N.M, 1980)의 사랑유형척도 검사지로 '그렇다'와 '아니다'로 답하고 100을 곱한 결과로 하위요인은 여섯 가지 사랑유형으로 나누었다. 사랑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편하고, 좋고 취미도 비슷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통하고, 서로 감추는 것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서로

사랑하는 애인 같은 사랑유형이다.

② 논리적 사랑

현명하게 사랑을 하려는 유형으로서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유형이다.

③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서로 만나자마자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열정이 강하며 이 유형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기 보다는 사랑자체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랑유형이다.

④ 소유적 사랑

소유적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⑤ 이타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돌보아주며 용서를 베풀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 ⑥ 유희적 사랑

유희적 사랑은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는 즐기 위한 것으로 사랑을 하나의 이기기 위한 시험으로 여기는 경우이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하였고, 성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은 ANOVA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법(Scheffe)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 V. 연구결과 및 해석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연구 문제순으로 제시하였다.

### 1.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  
성별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에 따라 심리적 성장환경 중 성취(p<.05)와 존경(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심리적 성장환경 중 성취와 존경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에 비해 남자는 가정으로부터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받았으며, 항상 활동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M(SD)

성 별	남	여	t값
하위변인			
전통 고수	2.37(0.61)	2.46(0.58)	-1.00
자유	3.43(0.56)	3.40(0.51)	0.46
성취	3.09(0.44)	2.97(0.48)	1.94*
의사소통	3.64(0.86)	3.68(0.74)	-0.35
상호역할 기대	3.45(0.68)	3.39(0.65)	0.65
상호 친밀	3.60(0.65)	3.47(0.59)	1.49
변화 지향	3.07(0.58)	3.21(0.57)	-1.80
집단 응집력	3.18(0.54)	3.17(0.59)	0.11
물질 지향	3.04(0.64)	2.96(0.68)	0.88
사랑	4.31(0.68)	4.26(0.62)	0.61
존경	3.81(0.62)	3.58(0.68)	2.47**
수용	3.57(0.72)	3.56(0.64)	0.23

\*p<.05 \*\*p<.01

<표 5> 연령에 따른 심리적 성장 환경 M(SD)

연령 하위요인	18-19세	20-21세	22-23세	24-25세	26-27세	28세 이상	F값
전통고수	2.37(0.52)	2.52(0.60)	2.41(0.58)	2.45(0.63)	2.25(0.50)	2.28(0.80)	0.92
자 유	3.21(0.83) <sup>a</sup>	3.26(0.58) <sup>a</sup>	3.45(0.42) <sup>a</sup>	3.50(4.45) <sup>a</sup>	3.59(0.42) <sup>a</sup>	3.95(0.48) <sup>b</sup>	3.80**
성 취	3.09(0.52)	3.09(0.48)	2.97(0.47)	2.99(0.48)	3.01(0.47)	2.89(0.33)	0.66
의사소통	3.32(1.01)	3.53(0.86)	3.73(0.66)	3.68(0.83)	3.88(0.69)	3.95(0.76)	1.62
역할상호기대	3.51(0.74)	3.51(0.67)	3.39(0.67)	3.33(0.61)	3.29(0.59)	3.38(0.76)	0.64
상호친밀	3.30(0.82)	3.45(0.65)	3.55(0.58)	3.56(0.60)	3.68(0.59)	3.76(0.51)	1.15
변화지향	2.84(0.67) <sup>a</sup>	3.05(0.59) <sup>a</sup>	3.27(0.52) <sup>a</sup>	3.10(0.62) <sup>a</sup>	3.23(0.53) <sup>a</sup>	3.48(0.51) <sup>b</sup>	2.50*
집단응집력	2.94(0.71) <sup>a</sup>	3.00(0.59) <sup>a</sup>	3.25(0.51) <sup>b</sup>	3.28(0.58) <sup>b</sup>	3.34(0.48) <sup>b</sup>	3.38(0.52) <sup>b</sup>	2.82*
물질지향	2.86(0.76)	2.96(0.75)	2.94(0.57)	2.97(0.64)	3.25(0.65)	3.27(0.78)	1.31
사 랑	4.14(1.09)	4.29(0.67)	4.28(0.53)	4.26(0.67)	4.23(0.58)	4.55(0.54)	0.50
존 경	3.58(0.70)	3.68(0.66)	3.63(0.70)	3.76(0.72)	3.76(0.47)	3.70(0.80)	0.31
수 용	3.21(1.02) <sup>a</sup>	3.40(0.71) <sup>a</sup>	3.64(0.58) <sup>b</sup>	3.64(0.62) <sup>b</sup>	3.76(0.57) <sup>b</sup>	3.88(0.57) <sup>b</sup>	2.73*

\*p<.05, \*\*p<.01 사후검증: Scheffe' test

2) 연령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

연령에 따른 심리적 성장환경에 대한 연구결과 는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심리적 성장환경 에서 자유,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수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 및 변화지향에서 다 른 연령집단에 비해 28세 이상의 경우가 높게 나 타났으며, 집단응집력과 수용에서 22세 이상의 경 우가 21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 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정을 생활공동체 로 일체감을 가지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스런 대 인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과 가족상호간의 긍정적 인 수용적 태도가 높다는 천희영·류혜옥(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 립이 이루어지며 사회생활의 적응에 대한 준비단 계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대학생의 사랑유형

1) 성별에 따른 사랑 유형

성별에 따른 사랑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대학생의 사랑유형은 성에 따라 이타 적 사랑, 낭만적 사랑(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유형 중, 이 타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들의 경우 유희적 사 랑과 낭만적 사랑이 훨씬 높으며 가장 좋은 친구 로서의 사랑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는 김중 술(1994)의 연구와 William Kephart(1967)의 연구 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 에 쉽게 빠지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사랑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방에 대한 조건 및 결혼에 대한 전제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사랑유형 M(SD)

성 별	남	여	t값
하위요인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67.58(19.49)	62.79(18.05)	1.82
이타적 사랑	64.52(21.83)	53.33(22.13)	3.77***
논리적 사랑	56.98(23.54)	59.73(21.24)	-0.87
유희적 사랑	48.06(24.67)	51.88(27.92)	-1.03
낭만적 사랑	49.26(26.75)	37.79(21.96)	3.28***
소유적 사랑	48.55(24.66)	44.24(24.06)	1.25

\*\*\*p&lt;.001

〈표 7〉 연령에 따른 사랑유형 M(SD)

하위요인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논리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연령						
18-19세	68.00(19.00)	66.67(13.61)	52.14(22.95) <sup>a</sup>	43.65(21.11)	44.23(22.60)	47.12(19.20)
20-21세	70.00(19.00)	59.96(22.89)	51.30(21.76) <sup>a</sup>	53.44(31.16)	38.91(24.28)	47.18(25.55)
22-23세	61.00(17.00)	52.90(20.11)	60.61(20.63) <sup>b</sup>	50.72(23.43)	40.49(19.72)	43.37(23.02)
24-25세	64.00(21.00)	60.27(26.94)	65.69(20.71) <sup>b</sup>	54.21(27.46)	51.82(35.23)	48.53(23.79)
26-27세	61.00(21.00)	56.02(20.59)	62.04(18.51) <sup>b</sup>	38.89(20.20)	42.71(21.15)	51.04(22.70)
28세이상	63.00(10.00)	64.44(20.82)	65.43(18.79) <sup>b</sup>	51.39(35.03)	46.25(22.09)	36.25(35.08)
F값	1.63	1.51	2.68*	1.38	1.38	0.79

\*p&lt;.05 사후검증 Scheffe' test

## 2) 연령에 따른 사랑유형

연령에 따른 사랑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논리적 사랑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연령에서 22세 이상의 대학생이 21세 이하의 대학생보다 논리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을 사귀는데 있어서 결혼상대자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김정옥·김형섭(199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 및 사랑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심리적 성장환

경 중 성취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타적 사랑, 유희적 사랑과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p<.05). 의사소통과 유희적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p<.05),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사랑, 존경과 가장 좋은 친구로서 사랑과는 정적상관(\*p<.05, \*\*p<.01), 변화지향 및 집단응집력과 논리적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p<.05, \*p<.01)을 보이고 있다.

즉 심리적 성장환경이 성취 지향적일수록 즉 가정 내에서 포부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도록 격려하고 지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타적 사랑, 유희적 사랑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장환경 중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수준이 낮을수록 유희적 사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희적 사랑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깊숙이



〈표 8〉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상관관계

사랑유형 심리적 성장환경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타적 사랑	논리적 사랑	유희적 사랑	낭만적 사랑	소유적 사랑
전통고수	0.001	-0.007	0.116	0.063	0.004	-0.009
자 유	0.018	0.012	0.057	-0.092	-0.011	0.0621
성 취	0.170*	0.166*	0.044	0.136*	0.060	0.109
의사소통	0.088	-0.063	0.102	-0.165*	-0.121	-0.014
상호역할기대	0.265**	0.128	0.028	0.112	0.079	0.068
상호친밀	0.189*	0.019	0.044	-0.043	0.070	0.048
변화지향	0.066	0.049	0.144*	-0.078	-0.055	-0.073
집단응집력	-0.004	-0.096	0.194**	-0.032	0.081	0.123
물질지향	0.089	0.057	0.033	0.018	0.070	0.126
사 랑	0.192*	-0.019	0.048	-0.084	-0.037	0.027
존 경	0.222**	0.035	0.112	-0.090	-0.033	0.019
수 용	0.052	0.002	0.009	-0.102	-0.060	0.020

\*<p.05 \*\*<p.01

들어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John Lee(1975)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변화지향과 집단응집력이 높을수록 논리적 사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가족구성원이 가정을 생활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을수록 논리적 사랑이 높게 나타났는데, 논리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두고 미래의 가족에 대해 깊게 고려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좋은 배우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사랑, 존경이 높을수록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서로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인 행동유형을 통해 서로 협조적이며 역할기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사랑과 서로간에 존경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심리적 성장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사랑유형 중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과의

관계가 깊으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간에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으며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지지와 협조를 받고 서로간에 깊은 신뢰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김중술(1994)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 VI.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 88명과 여자 128명에게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심리적 성장환경 중 성취와 존경에서 높게 나타나, 자라면서 남자에게 더욱더 성취 지향적인 기대 및 격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경우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자유,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수용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즉 연령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정을 생활공동체로 일체감을 가지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며 사회생활에 적응에 대한 준비단계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사랑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이타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서 높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에 쉽게 빠지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사랑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방에 대한 조건 및 결혼에 대한 전제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사랑유형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논리적 사랑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 및 사랑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성장환경 중 성취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타적 사랑, 유희적 사랑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사소통과 유희적 사랑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사랑, 존경과 가장 좋은 친구로서 사랑과는 정적상관, 변화지향 및 집단응집력과 논리적 사랑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이 높은 경우 가정내에서 포부에 대한 기대를 격려 및 지지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서로간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유형을 통해 협조적이며 역할기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사랑과 존경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유희적 사랑의 경우 성취지향적이고 가정내에서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유희적 사랑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논리적 사랑에 있어서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변화지향적이고 가족간의 집단 응집력이 높을수록 논리적 사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심리적 성장환경 중 가정내에서의 의사소통수준이 낮은 경우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유희적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변화지향과 집단응집력은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기준 및 미래의 가족에 초점을 두는 논리적 사랑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사랑, 존경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 및 신뢰, 갈등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평화롭게 타협하는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 신뢰감과 친밀감, 자아정체감 형성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튼튼할수록 성장한 후에도 깊은 신뢰감을 수반한 남녀간의 사랑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연구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한정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제한점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에 대한 양상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심리적 성장환경에 따라 대학생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적 성장환경과 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적응 및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올바른 이성교제 및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각각의 사랑유형과 정의식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태용·김혜은(1996),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변인과의 관계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4(1), 167-177.
- 김문조 외(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 비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27권, 181-216.
- 김선애(1994),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유안진(1989), 취업모의 인지 훈육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4권, 29-38.
- 김영국(1991), 가정환경 및 인성요인이 고등학생들

- 의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산촌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술(1994), 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정옥·김형섭(1994), 강릉대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관한 의식조사, 강릉대학교 학생생활연구.
- 김정옥(1992), 결혼과 가족, 학지사.
- 김혁곤(1996), 대학생의 성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5권.
- 박순영(1983),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권, 85-97.
- 박재욱(1983), 가정환경의 심리적 요인과 자아개념 하위요인과의 관계,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4권, 3-23.
- 서창원(1992),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대한 조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9권, 149-166.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원식(1965), 자아개념 검사 및 요강, 코리아 테스팅 센터.
- 조은숙(1978), 대학생의 학교생활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생생활연구 12권, 5-82.
- 천희영·류혜옥(1992), 대학생의 아이덴티티수준과 가정 및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 고신대학생생활연구 7, 50-67.
- 허철수(1990), 대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및 심리학적 고찰,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2권, 111-132.
- Enright, R. D., Lapsley, D. K., Drivas, A. E., & Fehr, L. A. (1980), Parenti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6), 529-545
- Erikson, E. H. (1959), The Problem of ego identity, *Psychological Issues*, 1, 101-16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In B. B., Wolman(Ed.)(1984).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Kephart, W. M. (1967), Some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29, 3.
- Lasswell, M. & Lobsenz, N. M. (1980), *Styles of Loving*, New York : Doubleday.
- Lavoie, J. C. & Looft, W. R. (1973), Parental antecedents of resistance-to-temptation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Merrillpalmer Quarterly*, 19, 107-116.
- Lee J. A. (1975), *Colors of Love*, Toronto : New Press.
- Matterson, R. (1974), Adolescent self-esteem, family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86, 35-47.